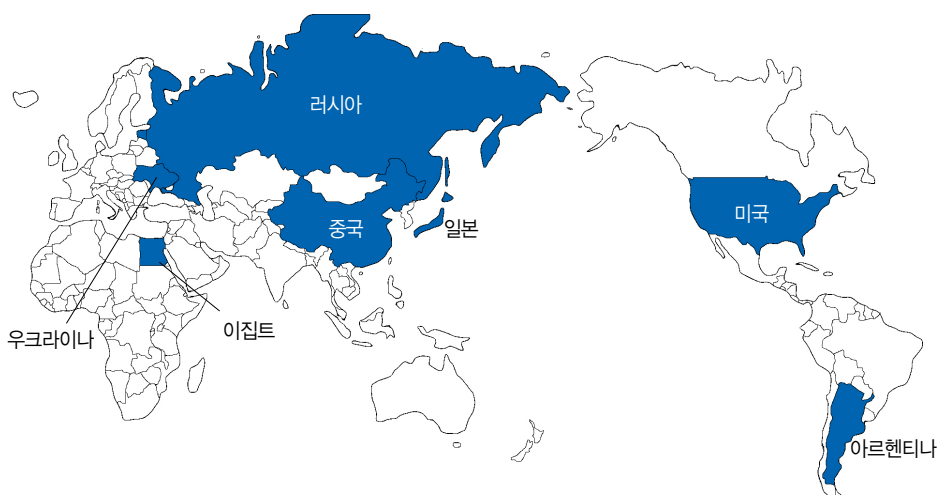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뉴스



북아메리카 미국 미국농가, 곡물가격과 함께 수익도 급락 미국, 터키의 미국산 주정박 수입거부에 대해 과소평가	아시아 중국 중국,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 허용 중국의 2014/15년 대두수입 전망 4.5% 상승, 73.5백만 톤으로 조정 중국의 11월 대두수입, 계절적 수요로 상승 중국 대두수입업자, 내주 시카고에서 구매협정 체결예정 일본 일본기상청, 겨울에도 엘니뇨 지속전망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강우로 농가면적의 67% 대두파종	유럽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조류독감으로 가금류 수입금지 우크라이나, 목표면적의 98%로부터 곡물 62.7백만 톤 수확 러시아 러시아, 타이트한 수출규제로 곡물수출 감소전망 러시아 밀가격, 루블가치 하락으로 상승 러시아 곡물단체, 러시아정부에 수출감축하지 않도록 요구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조류독감으로 이틀만에 두 번째 사망자 발생	

1. 미국

■ 미국농가, 곡물가격과 함께 수익도 급락

미국의 곡물가격 하락 및 생산비용 증가로 2014년 미국농가 수익은 2010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투자 및 농지 가치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 부채도 3.1%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보다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USDA 경제연구소(ERS)에 따르면, 2014년 순농가소득은 969억 달러로 8월 추정치 1,132억 달러보다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USDA는 현재 2014/15년 옥수수 평균가격을 부셸당 3.5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8월 전망치인 3.9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4.11.26.)

■ 미국, 터키의 미국산 주정박 수입거부에 대해 과소평가

중국과 태국의 미국산 주정박(DDGs)에 대한 수입거부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며 이것이 향후 교역중단 확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곡물협회에 따르면, 터키는 사료원료 및 에탄올부산물 3개 선적분을 수입거절했으며, 이는 터키가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세계 최대 옥수수수입국인 중국은 올해 초 미국산 주정박 수십개 선적분을 수입거부했으며, 이 또한 수입물량에서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질 MIR162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한 상인에 따르면, 터키의 수입거부는 무려 5건이나 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새로운 선적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터키가 수입거부했던 물량들은 ADM,N이 판매한 물량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터키는 올해 10월 한달내내 385,421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여 전년동기 대비 53%나 증가했다.

그러나 터키의 이러한 수입거절은 대부분의 상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은 아니다. 터키는 2011년 이미 미국산 주정박에 대한 수입을 거의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품질표준을 강화하고 상표 및 포장규격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4.12.13.)

2.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강우로 농가면적의 67% 대두파종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지난 7일간 팜파스 곡창지대의 강우소식에 따른 작황개선으로 2014/15년 대두 파종면적을 12.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재배면적 20.6백만 헥타르 중 67%에 대해 대두 파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최대 대두박 가축사료 수출국이며 세계에서 3번째 대두 공급국이다. 지난주 코르도바,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지역의 강우로 인해 2014/15년 밀수확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늦파종 대두의 파종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2014/15년 아르헨티나 대두수확은 5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아직 대두수확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부레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아르헨티나의 2014/15년 상업용 옥수수의 51.8%의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이번시즌 밀수확도 이미 완료되었다고 한다. (2014.12.12.)

3. 이집트

■ 이집트, 조류독감으로 이틀만에 두 번째 사망자 발생

화요일, 이집트의 한 여성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에 접촉 후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으로 이틀만에 두 번째로 사망했으며 이는 올 한 해 그 국가에서 세 번째 사망자이다. 이집트 보건당국에 따르면, 30세 여성은 카이로 남부지역의 미나 지역 출신으로 아시우트 남부도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한편, 19세 여성도 월요일 아시우트 병원에서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가금류에 퍼져가고 있는 때는 언제든지 사람에게도 산발적인 감염위험이 있으며, 특히 감염된 조류나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H5N1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케이스는 드물며, 현재 사람 간에 쉽게 전염되지 않고 있다. 이집트의 H5N1은 주로 이집트 남부의 가난한 시골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그 곳은 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금류를 키우고 도살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다.
(2014.11.19.)

4. 중 국

■ 중국,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 허용

중국 검역당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수 수출국으로서 중국으로의 곡물 수출국들 중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국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수 수입 허용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옥수수사료 대신 값싼 사료로서의 수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검역당국은 아르헨티나와 식물위생규약에 대해 합의를 하고 11월3일부터 남미로부터의 수수 수입을 인가하였다. 수수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술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동물사료에의 사용은 지난해부터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증원인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옥수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 공급 다양화 및 국내 옥수수 대체곡물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USDA에 따르면, 중국은 2014/15년 수수 4.6백만 톤을 수입할 전망이며 이는 2013/14년 4.16백만 톤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4/15년 수수 5.8백만 톤을 수출할 전망이며 아르헨티나는 1.3백만 톤, 호주는 800,000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11.27.)

■ 중국의 2014/15년 대두수입 전망 4.5% 상승, 73.5백만 톤으로 조정

2014/15년, 세계 최대 대두수입국인 중국은 동물사료산업 수요둔화 전망으로 전년대비 4.5% 상승수준인 73.5백만 톤의 대두를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 2014/15년 수입증가율은 2013/14년의 수입증가율 17.5%와 비교하면 좋은 성과가 아니다. 2014/15년 경제상황과 가축 및 동물사료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두박에 대한 수요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2014/15년 대두수입 전망치는 74백만 톤으로 USDA의 전망

치와 동일하다. 중국 대두가공 산업은 올해 첫 10개월 간 285.1억 위안(4.6백만 달러)의 결합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0월 한 달동안도 18억 위안의 손실이 지속되며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조류독감 발병 및 금융거래자들에 의한 과도한 수입으로 대두가공 산업이 이윤창출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첫 10개월간 금융거래자들에 의한 대두수입만 해도 총 12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총 대두수입의 22%에 해당한다. 2014/15년 기간동안, Sunrise는 7.9백만 톤을 수입하여 2013년 총 수입량을 초과하였으며, Changhua는 2.08백만 톤, Shandong Yonghui International Trade는 1.18백만 톤을 수입하였다. 2013/14년, Sunrise는 최대 대두 수입업체로 9.2백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이에 뒤를 이어 국영기업인 Jiusan Group이 8.13백 만 톤, Wilmar이 5.45백만 톤을 수입하였다. (2014.11.4.)

■ 중국의 11월 대두수입, 계절적 수요로 상승

중국은 대두 가공업자들의 높은 계절적 수요로 11월에 대두 6.03백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지난달 대비 47.1% 상승한 수준이다. 세계 최대 대두수입국의 높은 대두수입으로 미국산 오일시드의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꺾고 반등하였다. 한편, 중국의 11월 수입은 2013년 동기간 대비 12.3% 증가하여 62.87백만 톤으로 상승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오일시드 수입량은 더욱 증가하여 7.5백만 톤을 상회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 가격 하락세에 따른 가공마진 감소로 가축사육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만큼 좋은 편은 아니다. (2014.12.8.)

■ 중국 대두수입업자, 내주 시카고에서 구매협정 체결예정

12월16일, 중국의 6개 대두 수입업체 대표들은 미국산 수출업자들과 시카고 체결식에서 미확정 물량의 대두거래에 대한 체결을 할 예정이다. USDA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결은 구체적인 가격이나 선적기간 명시화 없이 '프레임계약'으로 이루어지나, 과거의 이러한 체결식에서 높은 수출판매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USDA에 따르면, 세계최대 대두수입국인 중국은 현재 유통년도 기간동안 세계 공급업자로부터 74백만 톤의 오일시드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위스콘신 밀워키의 비슷한 체결식에서 중국의 COFCO와 Sinograin 등은

미국산 대두 4.8백만 톤에 대한 구매체결을 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23억 달러였다. USDA에 따르면, 이러한 체결 후 3일간 약 2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편, 내주 시카고에서의 체결식은 12월16일-18일 간 개최되는 ‘미중 통상교역 공동위원회’의 25번째 시즌과도 일치한다.(2014.12.9.)

5. 일본

■ 일본기상청, 겨울에도 엘니뇨 지속전망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폭우와 가뭄을 동반하는 엘니뇨 기후는 올 여름동안 나타났으며 겨울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 크다고 한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에 올 겨울 엘니뇨 형성가능성에 대해 이전달 전망치인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며 동남아시아와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하여 쌀, 밀, 원당 등의 식량생산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2014.12.10.)

6.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조류독감으로 가금류 수입금지

우크라이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그 국가들의 살아있는 조류 및 조류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 사찰단은 “수입금지는 국제감시기구가 그 국가들이 조류독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공표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국가들로부터 매년 비교적 소량의 조류 및 가금류를 수입하고 있다. 월요일, 영국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이미 발견되었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물질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확산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람에게도 산발적 감염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감염된 조류나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물론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드물며 사람 간에도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2003년부터 2014년 10월2일 데이터에 의하면, 실험실에서 확인된 사람의 조류독감 감염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668건에 16개국이며 그 중 393건은 사망건이라고 한다. (2014.11.19.)

■ 우크라이나, 목표면적의 98%로부터 곡물 62.7백만 톤 수확

우크라이나 농가들은 2014년 곡물수확을 거의 마쳤으며 목표면적의 98%로부터 62.7백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또한, 올해 곡물 평균수율은 헥타르 당 4.33톤으로 지난해 4.08톤 대비 상승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는 총 26.2백만 톤 수확했다고 한다. 밀의 경우, 지난 달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올해 23.7백만 톤 수확 전망으로 2013년 22.3백만 톤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리도 9.3백만 톤 수확이 완료되어 지난해 7.6백만 톤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은 30백만 톤으로 2013년 30.9백만 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4.11.28.)

7. 러시아

■ 러시아, 타이트한 수출규제로 곡물수출 감소전망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의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새로운 수출규제 제도를 제시함에 따라 곡물수출에 있어서 큰 폭의 감소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곡물수출은 사상최대에 근접한 생산량 및 루블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른 러시아 곡물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국내사용분을 위한 충분한 물량확보를 위해 곡물수출 감축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러시아 연방동식물위생검시국(VPSS)은 몇 개월 간 수출검사에서 발생한 불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에는 곡물자체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및 기계 상태까지

도 점검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동식물위생감시국 여성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곡물수출에 있어서 뚜렷한 감소가 야기될 것이나 그 감소폭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이러한 러시아의 규제도입 결정 후, 파리의 밀 선물가격은 약 2% 상승해 4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한편, 독일상인도 러시아의 이러한 규제는 전면규제는 아니나 수출규제의 첫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14/15년 러시아 곡물수출량은 17백만 톤으로 밀 14백만 톤을 포함한다. 곡물생산량이 104백만 톤으로 거의 사상최대 생산량에 근접하여 수출량도 전년대비 30% 상승했다. (2014.11.29.)

■ 러시아 밀가격, 루블가치 하락으로 상승

지난주 러시아 밀 수출가격은 루블약세로 소폭 상승했다. 루블은 올 한 해만 미 달러 대비 1/3이상 하락했다. 러시아 흑해지역의 단백질 12.5%함유 밀가격(FOB)은 전주대비 톤당 1.5달러 상승하여 225달러이다. 이러한 루블약세로 수출산업의 마진 역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곡물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30%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출호조세에는 루블약세뿐만 아니라 러시아정부의 국내수요분 확보를 위한 수출감축 규제시행 움직임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 연방동식물위생감시국(VPSS)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의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곡물수출 감축을 위한 규제를 도입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파리의 밀 선물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루블급락 및 원유하락이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봄으로써 곡물가격이 어떠한 요인들로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단계가 될 것이며, 현재는 주요 정치적 지표에 변화가 없지만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역시 곡물가격 등락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27일 기준, 러시아농가는 곡물 110.3백만 톤을 수확했으며 그 중 밀은 62.3백만 톤으로 목표면적의 98%이다.

한편, SovEcon에 따르면, 해바라기씨의 톤당 국내가격은 775루블 상승한 18,150루블(367달러)인 반면, 흑해 수출가격(FOB)은 톤당 830달러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 (2014.12.1.)

■ 러시아 곡물단체, 러시아정부에 수출감축하지 않도록 요구

러시아 곡물산업단체는 러시아정부에 곡물수출 규제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이는 농업부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요일, 러시아 연방동식품위생감시국(VPSS)은 새로운 곡물수출 규제제도를 도입중이며 이는 곡물수출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농산물 수출연합회도 이번시즌 곡물수출 규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며, 농산물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2014.12.3.)